

2014 풍물굿패 소리결 정기공연

풍류, 생명을 風流로 춤추다 II



2014.10. 2(목)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비마지** 부산문화재단 부산민예총 협찬 풍년농악기, 디자인미감 공연문의 풍물굿패 소리결 010-8518-5569

본 공연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시약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4 풍류, 생명을 춤추다..

삶...
사람...
목숨...
생명... 그리고 사람...

사람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 사람이지요.
살아가는 것만으로 사람이라 하기에는
온갖 생명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생명을 귀히 여기고 받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차가운 바다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댓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초고압 전기가 지나가는 자리의 나무와 풀, 벌레들...
새로 도로가 뚫리는 산허리와 계곡들,
그 속에서 사라져가는 생명들...
좀더 밝게, 좀더 풍족하게, 좀더 빠르게 살기위해서
우리는 사람이어야 함을 그 댓가로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풍류, 생명을 춤추다...

생명은... 사람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4월 16일 이후 우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고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이 모두 가실 때까지 함께 아프고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공연을 함께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동료들, 제자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공연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흐르는 산 - 대북
생명, 움트다 - 팽과리와 구음
소통 - 히튼춤과 사물놀이
춤추는 생명 - 설장구춤

금회복춤
풍물판굿
인간, 생명과 자연하다

공연 해설

흐르는 산 - 대북

인간과 못 생명이 덩고 살아가는 땅은 멈추어 있는 듯 하지만 지나간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산(땅) 또한 흘러가고 있다. 생명을 키워내는 대자연의 큰 기운을 느린 듯, 흘러가듯, 바람이 부는 듯한 대북 연주로 대지의 너른 기운을 표현하였다.

생명, 움트다 - 팽과리와 구름, 즉흥춤

지나간 시간의 흐름속에서 흘러가는 산, 시간을 좀 더 짧게 보아 그 속에서 나고 자라고 죽고, 다시 나는 생명의 기운을 표현하였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과 같다. 팽과리의 날카롭고 어둠을 깨는 듯한 연주와 그 소리에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소통 - 허튼춤과 사물놀이

자연의 너른 품에서 안겨 살아가는 못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생명을 이기고 넘어서고 정복하며 인간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자연을 존중하고 받들며 조화로움과 자연스러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허튼춤과 사물놀이 연주로 표현하였다.



춤추는 생명 - 설장구춤

자연과 소통하던 인간이 그들의 판을 열어낸다. 못 생명과 함께 하던 기억은 잠시 잊은 듯하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오는 그 면면에는 못 생명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던 모습이 켜켜이 묻어있다. 설장구춤의 다양한 가락과 장단은 우리 삶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이야기 한다.

금회복춤

인간이 못 생명을 받들고 존중할 때, 인간 또한 큰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조화로움을 이루어낸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모습은 그것만으로 예술적 완성을 이루어낸다. 복춤은 인간이 가장 자연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원초적인 예술행위이다.

풍물판굿

변화무쌍한 자연의 흐름과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정성과 마음을 역동적인 풍물진법으로 표현하였다.

인간, 생명과 자연하다

못 생명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펼치는 잔치판. 관객들과 함께 펼치는 대동놀이.



출연진

풍물굿패 소리결



김인수

이은규

구지연

유길현

이재철

김정훈

정연실

이준목



김현태

최형석

박성아

김현명

김희선

신유진

김솔진

오미소리

guest



배관호
달성다사 12차 진굿보존회 단장, 상쇠



유대상
김병섭류 설장구 이수자



변지연
무용단 미르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이수자



박재현
현대무용, July 무용단



신명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원



이하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제30회 춘향국악대전 최우수상

무용단 미르



박재희



김민정



김현애



김묘열



김원혜

교사풍물패 울림



허은경



박근희

도움주신 분들

(사)부산민예총, 달성다사12차 진굿보존회, 무용단 미르, 배관호 예술공방 art factory, 교사풍물패 울림, 디자인미감 풍년국악기, 부산대학교단대풍물패연합, 이장수님(사진)



풍물굿패 소리결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전통예술 공연단체로 2000년 결성되었다. 풍물굿과 사물놀이를 기본 바탕으로 전통예술에 대한 올바른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작품활동과 공연을 해왔다. 2002년 부산 아시아드 경기에서 통일응원단을 결성하여 남북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공연과 퍼레이드를 하였고 2003년에는 일본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2004년, 200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이쿠노 통일마당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였다. 2006년부터 '독일교포를 위한 전통예술 순회공연 및 워크숍' 및 순회공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현지 교포2세 사물놀이팀 '비봉(flying sticks)'과 현재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2009년에 프랑스 파리 '뤼마니떼' 축제에 한국공연단으로 참가하였으며 이외에 각 단원들이 대만, 일본, 중국 등지로 활발한 해외공연을 해왔다.

2007년과 2010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국 소외지역 문화순회공연을 주관하였다. 부산지역에서 매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전통예술 공연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매년 연말마다 '신명난 송년회'라는 타이틀로 정기공연을 하였다. 2012년에 국립부산국악원의 화요공감무대와 토요일신명무대에 초청되어 풍물굿과 사물놀이, 금회북춤 등을 공연을 하였다. 2013 정기공연 '풍류, 생명을 춤추다'로 생명의 온전함과 인간의 자연함을 풍물굿과 춤으로 풀어내는 공연을 하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부산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술인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전통예술의 올곧은 전승을 위하여 매년 여름에는 상모전수학교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도 외북춤의 정수인 금회북춤 캠프를 주관하고 있다. 소리결 결성 초기부터 달성다사 12차 진국보존회에 소속되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풍물굿패 소리결은 우리민족의 전통예술이 올곧은 전승과 폭넓은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역량을 연마하고 작품창작과 공연을 해오고 있다.

풍물굿패 **소리결**

풍물굿패 소리결 정기후원 안내

- ▶ **자동이체신청** 은행에서 아래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월 1만원이상)
부산은행 059-01-027503-9 풍물굿패소리결 김인수
- ▶ **CMS 신청** 후원하실 분 명의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불편이 없이 매월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월 1만원이상, 전국대학민주동문회 이름으로 출금)
- ▶ **후원회원 등록시** 꼭 전화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팸플렛과 초대권을 보내드리며, 소리결의 공연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 **연락처** 010-8518-5569 김인수

